



저어새와 청둥오리의 휴식 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칠새도래지를 찾은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들이 청둥오리와 함께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99만원!... “특수배송비 이 정도면 조롱”

일부 쇼핑몰 제주 배송불가 의미로 99만원 책정 도민 “인터넷 쇼핑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 분통 배송비 국민청원은 불발... 도, 제도개선 등 추진

강인희(43·여·제주시 노형동)씨는 최근 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다 화들짝 놀랐다.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가 '99만원'으로 적혀 있어서다. 강씨는 또다른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을 구매하려 했고, 그 사이트에선 제주지역 추가배송비가 20만원이 적혀있었다며 황당해했다. 강씨는 “1만5000원짜리 식품을 주문하는데 결제하려고 보니 최종 결제액이 100만원이 넘어서 깜짝 놀랐다”며 “일부 업체에선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은 배송이 불가하니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줬다’는 공지가 게시하지만, 그런 공지가 없는 경우엔 그냥 결제하지 않겠냐”며 “말도 안되는 비용을 보니 조롱받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은 기본 배송비 외 별도의 해상운송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명확한 책정 기준 없이 판매업체 또는 택배사 자체에 맡겨지기 때문에 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요금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수법까지 빈번히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온라인 오픈마켓(판매자·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나 파손 우려가 큰 물건의 경우 도서산간 지역 배송이 불가하지만, 아무리 공지를 해도 그냥 주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송비를 말도 안되게 높게 책정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그런 경우를 목격하면 그냥 도서지역 배송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별도 택배비를 요구하거나 배송불가를 통보하는 등의 사례는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유미(28·여·서귀포시 대정읍)씨는 “한 업체에서 5000원짜리 문구류를 구입했는데 추가 배송비 7000원을 따로 입금해야 상품이 출고되고, 배송비 인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주문이 자동 취소·환불된다고 적혀있어 추가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상품 구매가 자동 취소돼

환불될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업체 측에서 상품이 이미 제주도까지 왔다고 입금을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업체와 더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서 반품을 요청했다니 반품 택배비도 내라더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라는 국민청원을 한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7828명(마감일 2020년 12월 27일)이 참여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097명(마감일 1월 1일)이 동의했다. 모두 청원 성립요건에 크게 못미쳤다.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g@halla.com

최강 한파 온다... 오늘부터 또 ‘눈’

제주지역에 폭설과 함께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6일 0시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눈이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6일 오후 9시부터 7일 오전 9시 사이, 7일 밤부터 8일 아침 사이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6-8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가

최대 50cm, 해발고도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은 10-30cm다. 제주 해안가에도 5-10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고, 동부지역의 경우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기간 눈이 내리는 시각은 출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폭설과 함께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도 찾아올 전망이다. 6일 1-3°C에 머물던 아침 최저기온은 이튿날인 7일에는 영하 2-1°C까지 떨어지고 8일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8일 정점을 찍으며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7°C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직원 확진 제주교도소 상황 ‘예의주시’

검사결과 수용자 전원 음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등 수용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등 총 8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도는 제주교도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교정 시설내 코로나19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교정시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

활하는 집단 생활 시설이자 폐쇄 공간인 만큼 타 지역에서는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취약점, 보안조치 유무 등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면밀히 상황에 대응하며 집단 감염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에 맞게 분산될 수 있도록 인원수별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최종 검토 중이다. 1-2명 정도의 소수가 확진될 때는 제주교도소내 별도 격리시설(2실)을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며, 3-25명의 소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격리 수용동 1개소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성산포항 면세점 개장 서둘러 손실 자초”

도감사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18건 조치

제주관광공사가 성산포항 면세점 개장을 성급하게 추진해 영업 손실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공사는 성산포항 면세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운행하는 선박 출항시간이 오전 시간대인 관계로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지난해 8월 7일 면세점을 개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63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9300만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운영에 대한 적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더불어 공사는 기존 미달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간판불 끄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적발

방역수칙 위반 영업주 고발 술 마시던 이용객엔 과태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가 이달 17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 첫날인 지난 4일 10개 현장 점검반(20명)을 투입해 음식점·유흥시설·목욕업 등 중점관리시설 271곳을 점검중 영업중인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테이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일반음식점 3곳에는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날 오후 9시 22분쯤 간판불을 꺼졌지만 노랫소리가 들려 연동지구대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3개 룸에서 손님이 주류를 취식중이거나 취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집합금지예 따른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영업주를 고발하고, 이용객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30건을 적발했다. 문미숙기자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